

전남 '솔라시도' 투트랙 개발사업 속도

구성지구, 스마트팜·태양광발전 '순조'...스마트시티 '주춤'

삼호지구, 내년 초 45홀 골프장 개장...13년만에 첫 수익사업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일명 J프로젝트)'가 투트랙으로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성지구는 스마트팜과 태양광발전시설 등 새로운 콘셉트가 착착 진행중이고 삼호지구는 13년만에 첫 수익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대 2095만9540㎡(634만평) 규모의 솔라시도 구성지구는 기존의 대규모 골프장을 축소하고 스마트시티를 콘셉트로 태양광 발전시설(50만평), 스마트 팜 클러스터 조성(30만평), 자율주행 인프라 등 사업이 추진중이다.

솔라시도 구성지구 특수목적법인(SPC)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은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해 인·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조만간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사업 역시 농림축산식품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농식품부가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하기로 하고 올 사업대상 2곳을 선정하는 가운데 전남도가 해남 구성지구 일대를 선정했다.

전남도는 여러 여건상 해남이 경쟁력이 있어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구성지구가 지향하고 있는 스마트시티가 정부가 국가시범사업 작업을 머뭇거리면서 다소 주춤한 상태다.

정부는 올 1월 세종시와 부산에 코벨터시티 등 2곳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하고 2단계로 하반기에 지자체 제안방식으로 추가 선정을 발표했으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국도교통부가 기존 세종과 부산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선정할 것인지, 신도시에 추진할지, 기존 도시를 활용할 것인지 등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책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내에서 추

진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의지가 있는 만큼 추가 시범도시 선정은 시간만 남은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군 삼호읍 일대 866만1000㎡(262만평) 규모로 추진중인 삼호지구 기업도시개발사업도 공유수면(간척지)매립 공사 준공과 함께 토지화가 완료돼 개발에 탄력이 붙었다.

주관사인 에이스희원권거대소를 비롯한 삼환기업, 한국관광공사, 전남도가 참여한 서남해안레저(주)는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골프장 45홀 조성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 초 그랜드오픈을 위해 잔디 식재는 물론 내부 진입도로와 클럽하우스 신축 등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할 계획이다.

골프장이 개장되면 지난 2005년 낙후된 전남 발전을 위해 노후된 정부에서 시작된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13년만에 사실상 첫 수익사업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남해안레저는 골프장과 연계한 페어웨이 빌리지, 마리나 빌리지, 시니어 빌리지 등 정주인구와 은퇴자를 위한 주택단지, 스파장, 마리나리조트, 등대전망대, 허브테마단지 등이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간척지의 토지화가 완료돼 사업 시행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가능해져 부자유치와 개발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역 경제에 한 인사는 "국민의 정부에서 J프로젝트, 참여정부 전반부에 프로젝트에서, 참여정부 후반부에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솔라시도는 문재인 정부에 첫 결실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호지구와 구성지구는 서로 다른 콘셉트로 상호 선의의 경쟁속에 개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솔라시도는 태양(Solar)과 바다(Sea)에서 차용한 영어 발음을 한글화한 것으로 애초 6개 지구로 나눠 추진됐지만, 송천·초송·부동지구 개발이 중단되고 현재 구성·삼호·삼포지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김정환 기자

동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광주 동구가 2018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동구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 회원과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기여한 유공자 1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제8회 광주여성영화제 상영작인 김경식 감독의 '8.15'를 함께 관람했다.

또 양성평등관련 관련 작품전시와 동구보건소의 미니건강부스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서구, 공원 물놀이장 14일 개장

여름철 도심 피서지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무시민공원'과 '쌍학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장이 오는 14일 개장한다.

서구는 7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상무시민공원과 쌍학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을 무료로 개장한다고 밝혔다.

물놀이장은 10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대청소와 시설점검을 위해 휴장하며, 태풍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안전을 위해 휴장한다.

서구는 물놀이장 개장에 앞서 비박 탄성포장재 보완과 시설물정비를 마쳤다.

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선발하여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우선 이수하도록 했다.

남구, 세계수영대회 남북교류협력팀 신설

광주 남구가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의 바람을 이어가기 위해 행정조직에 남북교류협력팀 신설을 추진한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대회 남북 공동 응원단 추진과 경제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팀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협력팀은 5급 1명과 6급 3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17일 열리는 남구의 회 제25회 임시회에 '행정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협력팀이 신설되면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 기업체 현장방문 민생경제 살리기

문인 북구청장이 각종 규제와 기반시설 노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첨단산단을 현장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나섰다.

11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문인 북구청장이 첨단산단을 찾아 입주기업 3곳의 기업대표와 관계자들을 만나 기업 경영활동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체 현장방문은 문 구청장이 민선 7기 민생경제 활성화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업현장 밀착형 경제 종합지원센터와 현장민원실 운영에 앞서 일선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뤄졌다.

광산구, 외국인주민 민원 통역서비스

광주 광산구는 구청 민원실에서 외국인 주민에게 9개 언어로 '통역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혼인·출생·개명·창성 같은 가족관계 등록 신고, 체류지 변경 신고 등과 관련한 민원 요청 때 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역이 지원되는 언어는 베트남어·러시아어·중국어·크메르어(캄보디아)·키르기스어(키르기스스탄)·필리핀어·우즈베크어·태국어·네팔어다.

광산구는 통역콜 서비스와 연계한 명예통장제도도 운영 중이다. 9개국 12명의 명예 통장이 행정과 외국인 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통역콜 서비스'는 업무 담당자가 명예통장에게 전화해 셋이서 함께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형택 기자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발족...공동위원장 최영태 교수

생활민원 100일 내 해법제시...심의의결위 확대



이용섭 광주시장은 11일 오전 광주 시청 브리핑룸에서 최영태 공동위원장과 함께 시민권익위원회 발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선 7기 광주시정 방향인 혁신·소통·정령을 실현할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가 발족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1일 오전

광주시정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의 첫걸음으로 시민권익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은 이용섭 시장과 최영태 전남대 교수(사회학과)가 맡고 시민사회와 전문가, 의회, 행정 등 각계 인사 3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시민권익위원회는 1단계로 이용섭 시장이 후보·당선인 시절 운영한 온라인 플랫폼 '광주행복 1번가'와 '광주혁신위원회에 바란다'에 접수된 생활불편 사항과 정책제안 1800여 건에 대해 취임 후 100일 내 해법을 모색하는 자문을 맡는다.

조례개정 등의 절차에 앞서 신속하게 출범하기 위한 조치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이후 2단계로 시민참여 플랫폼 '광주행복 1번가'와 현재 광주시의 온·오프라인 불편신고접수 체계 등을 통합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심의·의결 위원회로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은홍 기자

전남 지방선거 후보 534명

선거비용 보전 청구...81.8%

전남지역 6·13 지방선거 후보자 중 534명이 선거 비용 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남지역 지방선거 후보자 443명(67.8%)은 전액 보전을 9명은 절반 보전을 청구하는 등 전체 후보자 653명 중 81.8%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100% 보전을 청구한 경우는 10명 중 6명이다.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2명은 전액 보전을 청구했다.

선거별로는 도지사 후보 5명 가운데 1명이 전액 보전을 1명이 절반 보전을 청구했다. 교육감 후보 3명 가운데 3명 모두 전액 보전을 청구했다. 시장·군수 후보중에서는 73명 중 46명이 전액, 7명이 절반 보전 대상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도록 돼 있다. 또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고흥 · 장성 · 장흥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소득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의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